

【Report on Tohoku Volunteer Program 2012】

Mother Tongue

Name: 이진호

【In your mother tongue】

1. What impression did you have on Tohoku after 1.5 year of disaster?

오오후나토시에 도착하자, 원래 집들이 지어져 있어야 할 자리에 무성한 갈대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정말 쓰나미가 있었던 것인가 의심할 만큼 바다는 온화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다. 너무나 평화로운 풍경을 보고 있자, 지금은 이렇게나 평화로운데 작년에는 지진의 피해가 있었던 것인가, 라고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케센누마시를 지나는 때에 육지 위에 올라와 있던 배를 보고서는, 새삼 지진과 쓰나미의 무서운 위력을 실감하게 되었다.

2. Please describe your experiences and tell us your reflection of them (for example, the work which you were engaged in, people's conditions you observed, the stories you heard from them, and any other interesting experiences you would like to share with readers of this report).

내가 있던 그룹에서는, 한국의 요리를 만들어 거주민들에게 대접을 하거나, 모뉴먼트의 제작을 돕는다거나 하는 활동을 했다. 집을 유실해버리고 가설주택에서 모두와 함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불편함으로부터 올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는 일은 무척 큰일이겠구나 라고 느꼈다. 그리고 지진재해로부터 1 년이상 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설주택에 남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괴로움은, 나로서는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거주민들에게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탬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본 자원봉사에 참가를 했지만,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나날을 보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내가 용기와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듯하여, 미안함과 감사의 기분으로 가득했다.

3. What did you learn from Tohoku and what would you like to suggest to your country people in case of natural disasters that might happen in your country?

무엇보다도 살아갈 힘. 나로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토호쿠의 사람들은 매일 힘겨운 상황에 견디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착실히 내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으로부터 나는, 설령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이겨내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4. Your message to your country people

여러 나라로부터 토호쿠를 도우러 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리고 싶다. 이를 계기로, 설령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분쟁이 만연해 있어도, 개개인은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 존중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국적 등 모두 벗어던지고, 서로 도우며 다독여주는 것으로, 보다 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므로.